



대만 양돈 분뇨처리시설 의무화

양돈공해 방지 위해

대만정부는 약 7백10만두의 규모에 도달한 양돈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양돈장이 분뇨처리시설을 1988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공포했다.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만의 양돈농가수는 현재 6만8천6백호로서 이중 3.3%만이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은 최소한 두당 1만8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대만정부의 이번 조치로 내년 2월까지 대만의 양돈산업이 분뇨처리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 비용은 1천2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가성광견병 혈청검사 철저 시행키로

가위연, 제51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서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설동섭)는 지난 9월 29일 오후 2시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 철저한 돼지가성광견병 혈청검사 실시 방안 등에 관해 협의했다.

중앙협의회 위원, 간사 및 각 가축위생시험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 가축 전염병예방집중 강화방안, 환절기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등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축공 난동 부산물 상인들 사과

지난 8월 10일 축협 서울공판장을 점거, 불법 난동을 부렸던 부산물업자들이 축공과 출하 양축가들에게 지면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부산물업자들은 사과문을 통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공판장에 불법난입하여 난동을 자행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제하고, 이사건으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약한다고 말했다.

중돈수요 격감

최근 중돈의 수요가 급격히 감퇴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돈가의 하락과 가성광견병 등 질병의 만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병의 만연 때문에 입식을 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나 돈가의 하락 때문에 중돈구입을 회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양돈업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불황의 문턱에서 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우수한 종돈으로 교체하고 축군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7월 이후 종돈수요가 급격히 감퇴, 현재는 지난 봄에 비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같은 기회를 이용, 좋은 종돈을 값싸게 구입하는 농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협공판장 도축 물량 급증

축협 서울공판장(장장: 김순갑)의 도축 물량이 민간 도축장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축협 서울공판장에 따르면, 서울의 3개 도매시장 1일 도축물량이 '85년도에 비해 24%가 증가하였으나 축공은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도매시장의 하루 도축물량은 '85년도에 4천98두에서 올해는 5천1백2두로 증가한 반면 축협 서울공판장의 도축물량은 '85년의 8백49두에서 올해는 평균 1천4백19두로 증가했다.

이와같이 축공이 상대적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대화된 시설과 계통출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민간도축장의 시설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 한 이와같은 현상은 더욱 빠른 속도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공, 부산물 가격 5% 인상

축협 서울공판장(장장: 김순갑)은 지난 9월 25일 축협 서울공판장 장장실에서 부산물 가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행 두당 4천420원하던 돈 부산물 가격을 5% 인상된 4천660원으로 인상했다.

두내장은 현행 kg당 265원에서 280원으로, 족은 두당 1천2백원에서 1천2백50원으로, 잡품은 두당 40원에서 5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돈 부산물 조정내역 (단위: 원)

품 목	단 위	현행가격		조정가격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두·내장	kg당 / 두	265	3,180	280	3,360	180원인상
족	두 당	-	1,200	-	1,250	50원인상
잡 품	두 당	-	40	-	50	10원인상
합	계		4,420		4,660	+240

축산단체장 조찬회 개최

축산업계의 당면 현안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축산단체장 회의가 지난 9월 16일 삼정호텔 샤론룸에서 본회 전동용 회장을 비롯 정태원 대한양계협회장, 송찬원 한국중축개량협회장, 김의수 한국나농육우협회장과 각 단체의 전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단체가 축산업계의 현안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앞으로 모임을 자주 갖기로 했다.

양돈경영자클럽, 수태지 거세하기로 결의

전국양돈경영자클럽(회장: 류근홍)은 지난 9월 15일 9월 월례회의를 열고 양돈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양돈경영자클럽 회원들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확대를 위해 전면 거세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